

시군의회이장협의회 주관 공무원외출장 결과 보고

I 공무원외연수 개요

- 연수기간: 2025. 7. 27.(일)~ 7. 31.(목) (4박 5일)
- 연수지역: 일본 도쿄
- 연수내용
 - 지역 현안인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선진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벤치마킹
 - 자연재해(지진) 대응 프로그램과 시설 시찰
 - 지역 랜드마크(스카이트리) 관광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방안 탐구
- 연수인원: 39명(의장 15, 의원 1, 직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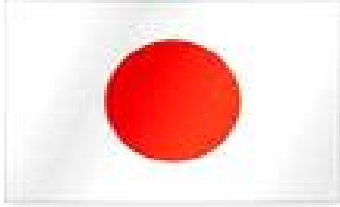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춘천시의회	의 장	김 진 호	영월군의회	의 장	선 주 현
	주무관	조 태 윤		주무관	이 찬 종
	주무관	양 해 성			
원주시의회	의 장	조 용 기	평창군의회	의 장	남 진 삼
	소통팀장	주 병 주		주무관	김 유 웅
	주무관	정 인 환		주무관	이 소 명
강릉시의회	의 장	최 익 순	정선군의회	의 장	전 영 기
	TF팀장	김 동 원		전문위원	남 창 순
	주무관	김 근 하	철원군의회	의 장	한 종 문
	주무관	최 지 훈		주무관	주 성 민
동해시의회	의 장	민 귀 희	화천군의회	의 장	류 희 상
	전문위원	유 정 희		의회사무과장	김 성 용
삼척시의회	의 장	권 정 복	양구군의회	의 원	조 돈 준
	주무관	심 재 석		전문위원	이 상 윤
횡성군의회	의 장	표 한 상	인제군의회	의 장	이 춘 만
	주무관	조 성 호		주무관	심 우 용
홍천군의회	의 장	박 영 록	고성군의회	의 장	용 광 열
	주무관	김 영 성		의회사무과장	이 경 희
	주무관	오 상 윤			
			양양군의회	의 장	이 종 석
				의정팀장	이 소 미
				의사팀장	엄 선 미

○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제1일] 7.27.(일)	인 천 나리타 도 교	항공 (KE711) 전용차량	10:00 13:40 16:10 19:00	▷ 인천공항 집결 및 출국 수속 ▷ 인천 공항 출국(출발 지연) ▷ 나리타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 호텔 이동 및 휴식
[제2일] 7.28.(월)	도 교	전용차량	09:00 09:40 10:30 12:00 13:30 15:00 18:00	▷ 호텔 조식 후 이동 ▷ 긴자거리 시찰 ■ 아자부다이힐즈 주상복합 시찰 ▷ 오다이바 시찰 ▷ 중식 ■ 도쿄 일자리센터 방문 ▷ 호텔 이동 및 휴식
[제3일] 7.29.(화)	도 교	전용차량	09:00 10:00 11:30 12:30 15:00 17:00	▷ 호텔 조식 후 이동 ■ 도쿄도의회 견학 ▷ 시부야거리 시찰 ▷ 중식 ■ 린카이 방재센터 견학 ▷ 호텔 이동 및 휴식
[제4일] 7.30.(수)	도 교	전용차량	09:00 10:00 11:00 12:30 13:30 15:30 19:00	▷ 호텔 조식 후 이동 ■ 스카이트리 안전 재해대책 현황 브리핑 ▷ 스카이트리 전망대·회랑 관람 ▷ 중식 ▷ 아사쿠사 센소지 방문 ▷ 신주쿠거리 시찰 ▷ 석식 후 호텔 이동 및 휴식
[제5일] 7.31.(목)	도 교 나리타 인 천	전용차량 항공 (KE712)	09:00 12:00 15:00 17:30 19:30 20:20	▷ 호텔 조식 후 이동 ▷ 사와라 마을 견학 ▷ 나리타 공항 이동 및 출국 수속 ▷ 나리타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 인천공항 입국 수속 후 해산

II

방문국가 · 도시현황



일본 [日本, JAPAN]

- 수 도: 도쿄(東京, Tokyo)
- 면 적: 37만 7,975km²
- 인 구: 1억 2,500만명(세계 12위)
- 언 어: 일본어
- 화 폐: 엔(¥, 円, JPY), 100JPY = 944.75원(2025. 8. 1. 기준)
- 개 요: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섬나라다. 태평양 남서 방향으로 3,000km에 걸쳐 길게 자리한다.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홋카이도(北海道)의 4개 주요 섬과 4,000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되어 있다. 행정구역은 1개 특별도, 1개 도, 2개 부, 43개 현으로 나뉜다. 일본어로 '니혼' 또는 '닛폰'이라고 하며, 공식 국호는 닛폰고쿠(日本國)다.



도쿄 [東京, Tokyo]

- 면 적: 2,193.96km²
- 인 구: 1,417만 8000명
- 행정구역: 도쿄도(道), 23특별구(特別區), 26시(市), 7정(町), 8촌(村)
- 개 요: 도쿄 도의 면적은 오사카 부(大阪府), 가가와 현(香川県)에 이어 3번째이나 인구는 일본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도쿄도는 일본의 수도로서 정치·외교의 중심인 동시에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문화 등의 최대 집중도시이다. 이와 같은 기능 집적은 메이지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금융도시로서 세계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일본의 수도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임.

○ 23개 특별구 : 도쿄 도심부를 구성하며, 각 구가 독립적인 행정 수행

- 도쿄 도심 핵심부임. (지요다구, 주오구, 미나토구)

: 일본의 정치, 경제, 금융 중심지, 주요 정부 기관과 기업 본사 집중으로 국회의사당, 황궁, 긴자, 니혼바시, 홋폰기, 오다이마 등 위치

- 상업·업무 중심지임. (신주쿠구, 시부야구, 도시마구)

: 가장 변화한 상업·업무 지구로, 글로벌 기업과 대형 상업 시설 밀집으로 일본 최대의 상업·비즈니스지구와 도쿄도청, 이케부쿠로 위치한 주요 상업·교통 허브임.

- 주거 및 문화지역 (메구로구, 세타가야구, 타이토구, 스미다구)

: 주거 지역이 많고, 관광 및 문화시설이 집중으로 아사쿠사, 우에노, 도쿄 스카이트리가 위치한 관광 중심지임.

○ 다마 지역 : 도쿄 서부의 광대한 주거·산업 지역으로 도쿄도의 약60% 차지함. (하치오지시, 다치카와시, 모사시노시)

○ 도서부 : 태평양 위치한 섬 지역, 도쿄도에 속하지만 본토와 떨어져 있음.

- 주요 섬지역 : 이즈 제도(오시마, 니지마 등 화상섬으로 구성), 오가사와라 제도(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생태보호 지역)

- 관광업과 수산업이 주요 산업임.

○ 도쿄는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로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몇가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음.

- 출산율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로 고령화 문제도 심각

- 시주쿠, 시부야 등 도심 지역의 지속적인 재개발

-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내진 설계와 재난 대비 시스템 강화 필요

Ⅲ 기관 방문 및 연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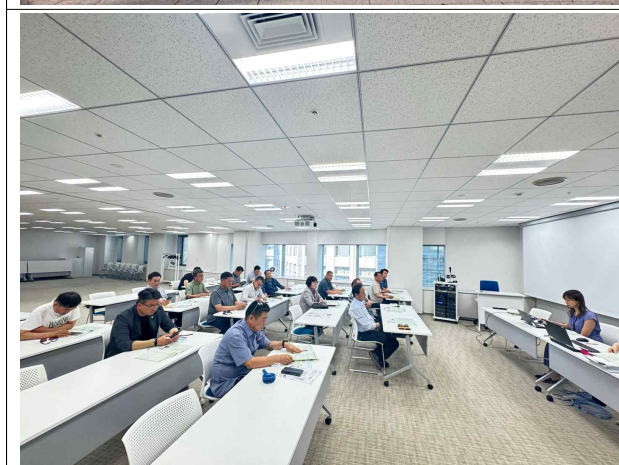
① 도쿄 일자리센터

□ 시설 현황 및 시찰

- 도쿄일자리센터는 일하고자 하는 도쿄도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경험이나 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도쿄의 산업 진흥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도모하여 활기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적성이나 처한 상황을 토대로 취업상담을 시작으로 하여 구직 활동이나 취업 후에도 도움이 되는 직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세미나,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도쿄도민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쿄도가 설립한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센터로, 연령대에 따라 29세 이하의 청년 코너, 30세에서 55세까지의 미들 코너, 55세 이상의 시니어 코너로 구분됨. 그 외에도 장애인, 여성재취업,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취업복지센터임.
- 일자리센터 중 우리가 방문한 실버인재센터는 만 60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 회원제로 운영하며, 센터가 공공기관 등에 일자리를 위탁받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형식으로 대부분 단기 또는 20시간 이하의 경미한 근무로 이루어짐.
- 실버인재센터는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재근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면접 방식이 아닌 회원가입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실버인재센터는 청소 또는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은행·회계, 컴퓨터 관리 업무 등을 포함하여 회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종의 연장 선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와 회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상이한 점이 많아 정책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고령자 일자리 지원이 단순히 일자리를 개발, 연계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상담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고령자가 스스로 재취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현장사진



□ 주요 관점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24년 20%가 넘어가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전국 평균 보다 5%p 높은 25%에 달함. 우리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및 재취업 서비스를 확대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소외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과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 특히 고령자의 재취업과 경력 개발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기업이나 기관에 공급하는 인력양성 중심 정책을 추진하며, 고령자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멘토링, 컨설팅 등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중 경제활동 희망 노년층들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소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령자의 전문 역량 개발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우리 역시 고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 멘토링,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고령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고령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 고령자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 매칭에 집중하기보다는 고용유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주요 관점

-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 발생 빈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자주 발생하여 수십, 수백 km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지진이 흔히 발생함. 대표적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0으로 기록되어, 2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함.
- 린카이 방재센터는 평소에는 지진 후 생존법등을 체험하는 학습 장소로 활용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긴급재해현지대책본부가 설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도 수시로 학습장소에 체험하여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태풍·지진 등 각종 재난을 자주 겪다보니 그에 대응·대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 대비부터 재난발생 시 대응책 및 재난 발생 후 생존대책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체험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일본은 몇 년전부터 수도권 지역 직하지진 발생가능성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고, 집집마다 방재 책자를 배포하고 체험시설을 마련해 언제든지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일본은 지진 대비 및 대응 체계가 매우 체계적이며, 지역별·센터별 재해 대응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재난 발생 전에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며 강원특별자치도도 역시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뿐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연간 약 70회의 지진이 발생하는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빈도와 강도가 비교적 낮은 편임. 하지만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도 점차 지진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음. 따라서,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진 대비와 안전설계,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사전 준비와 지속적 안전 강화 정책이 시급함.
- 린카이 방재센터는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대피를 위해 다양한 훈련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실재 재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도 정기적인 재난 대응 훈련과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대피로 확보 및 재난 대응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현장사진



③ 도쿄 스카이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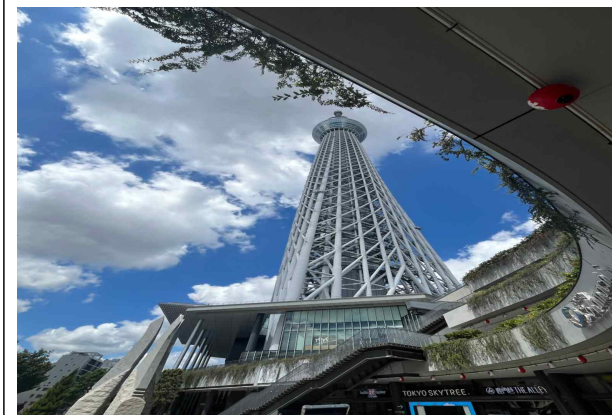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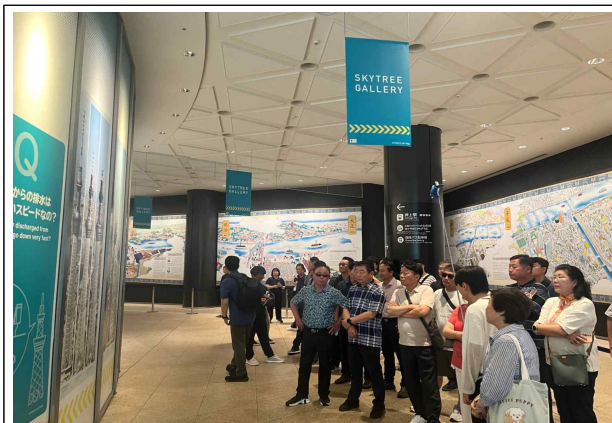
□ 시설 현황 및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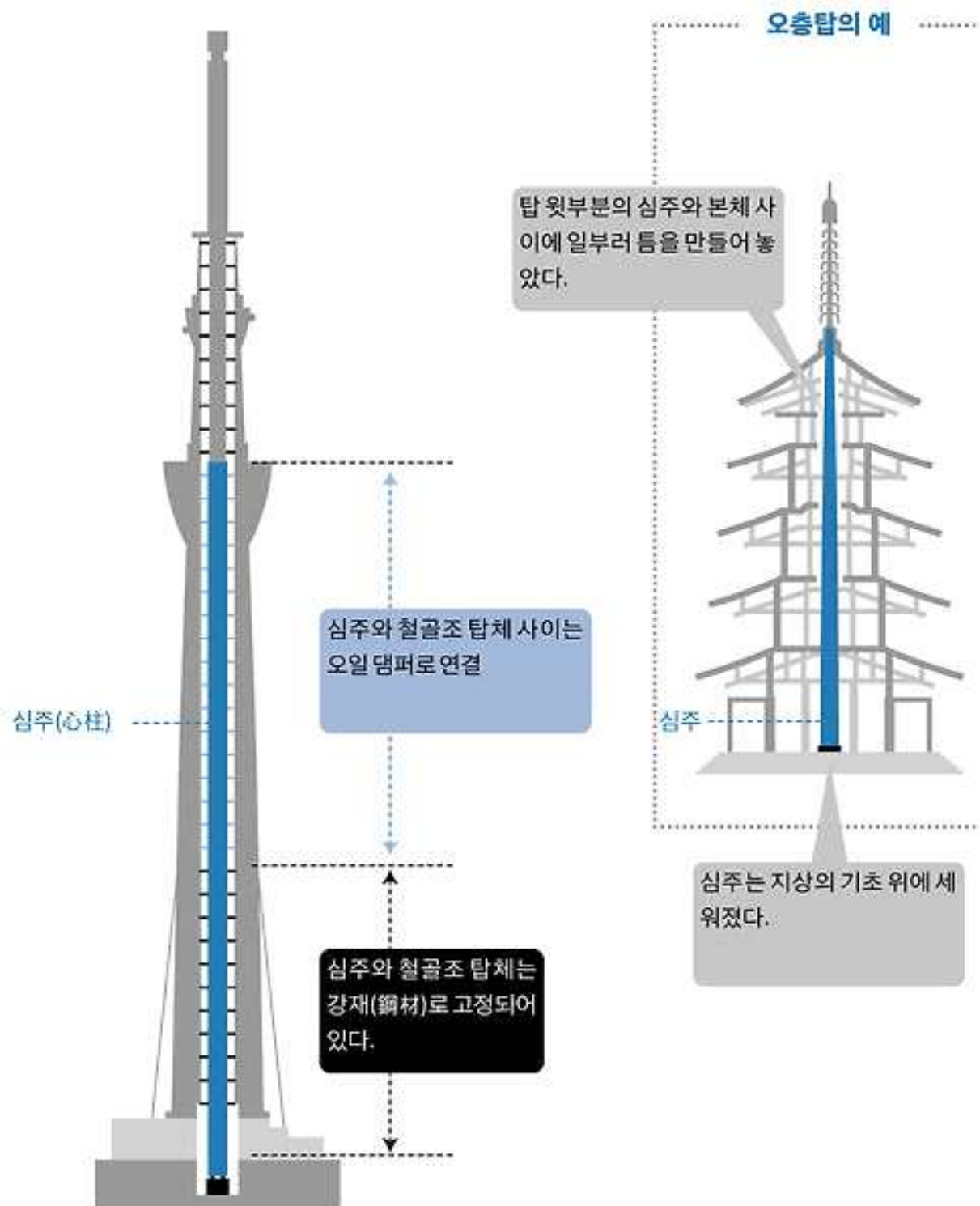
- 지상 29층, 높이 634m에 달하는 도쿄 스카이트리는 스미다구에 세워진 전파탑. 도쿄도 중심부 지역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마천루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중심부(미나토구)에 있는 도쿄 타워에서 나오는 전파가 높은 건물들에 막혀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못해 수신 장애가 생기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착공하여 2012년 완공되었음.
- 매년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과 큰 지진이 높은 확률로 발생하기에 타워 설계도 강풍과 지진이 주요 고려 요인이 되었으며, 600m가 넘는 철골 타워를 세우기 위해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삼각 형태의 철골을 선택했고, 세 개의 거대한 철근 다리 구조에 두께가 최대 10cm에 달하는 철판을 조금씩 비틀어 쌓아 올린 형태임.
- 스카이트리는 전통적인 일본 목탑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중심부에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을 배치하고 이 기둥과 외부 철골 구조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됨. 이러한 중심 ‘기둥 제진 시스템’은 지진 발생 시 건물의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상쇄하여 안정성을 확보함. 또한 건물 외벽에는 특수한 댐퍼가 설치되어 있어 바람이나 지진에 의한 진동을 추가로 흡수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건설 중이던 스카이트리는 이러한 설계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안정성을 입증함.
- 타워 철골 무게만 약 3만 6,000t에 달하며, 지진 대비를 위해 심주제진(心柱制振)공법을 도입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원통을

바닥부터 375m 높이까지 세운 형태로 심주와 철골탑 사이엔 유압으로 흔들림을 줄여주는 ‘오일 댐퍼’를 장착하여 지진이 발생해도 흔들림을 반감시킬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짐.

- 실제 도쿄 스카이트리 건설 중 2011년 동일본대지진(규모 9.0)이 발생하였으나 구조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진으로부터 7일 뒤 다시 건축을 시작해 634m의 탑을 완성한 뒤 2012년 5월에 정식 개관하면서 당시 일본에선 지진 피해 극복의 상징이 되었음.
- 건축학적 특징으로는 도쿄 스카이트리의 디자인은 일본의 전통적 미학과 현대의 첨단 기술을 융합된 디자인인 건축물이며, 내진설계로는 특별 진동 감쇄 시스템이 적용되어 지진 시 진동을 최대 50%까지 줄여줌.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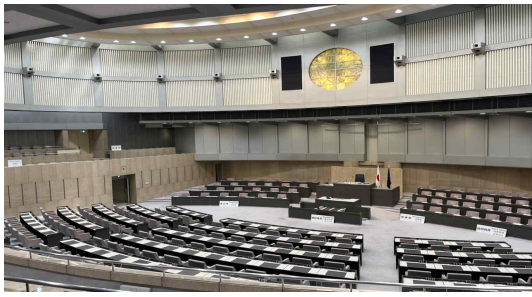
[도쿄 스카이트리 구조]

□ 주요 관점

- 도쿄 스카이트리는 현대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첨단 건축기술과 도시 브랜딩의 성공 사례임. 도쿄 스카이트리는 단순한 건축적 걸작일 뿐 아니라 634미터에 달하는 인상적인 높이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타워이며, 도쿄 대도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멋진 파노라마 전망을 제공하고 낮, 황혼, 밤 등 언제 방문해도 스카이트리는 각기 다른 매력을 느끼며,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에 감탄하며, 후지산, 레인보우 브리지, 도쿄 타워와 같은 유명 랜드마크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등 도시의 이미지와 상징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와 도시브랜드를 크게 활성화시키고 있음.
- 특히 스카이트리는 600m가 넘는 철골 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첨단 면진 설계 기술을 도입하여 건축 중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도 구조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약 일주일 후 공사를 재개할 만큼 안정성 있는 모습을 보임. 또한 도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는 다양한 문화적·관광적 콘텐츠를 접목시켜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 도쿄 스카이트리는 국제 관광도시 도쿄 실현과 지역의 새로운 산업 거점 형성, 지역사회 활성화 견인 등을 위해 조성되었음.
- 도쿄 스카이트리 처럼 강원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랜드마크의 개발은 지역의 상징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 자연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역할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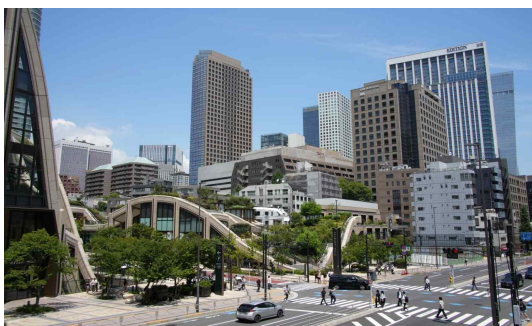
4 기타 활동 사항

□ 도쿄 도의회



일본 도쿄의 의결기관으로, 도쿄 내 정책과 법안을 심의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의회로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도쿄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아자부다이 힐스 주상복합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사례로, 기존 활력 없는 권역에 현대적 주거단지와 공원, 문화시설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지역 활력을 회복한 곳이다. 자연환경과 도시 인프라를 잘 연계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였다.

□ 오다이바



도쿄만을 매립해 조성한 인공섬으로, 도쿄의 미래지향적 도시 경관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다이버시티 도쿄(실물 크기 건담), 레인보우 브리지, 자유의 여신상 레플리카 등 수많은 명소로 유명하다.

□ 아사쿠사



도쿄의 역사와 전통이 깊이 자리한 지역으로, 고풍스러운 나카미세 거리와 센소지 사원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수백 년 전부터 일본 전통 문화를 간직하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으로서 관광과 전통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IV 주요 시사점

1. (도쿄 일자리센터)

⇒ 고용확보 정책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 일자리 센터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과 직무 교육이 매우 잘되어 있음.
- 개인별 능력과 경험에 맞는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직업훈련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일본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을 폐지하거나 70세까지 연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기업이 70세까지 근로 기회를 보장하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년층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직업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재취업을 돕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한국은 정년 연장,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 훈련 등의 정책변화가 필요함.
- 인구 고령화 비율이 특히 높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고령자의 재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시급함.
- 동해시도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이상)에 해당하므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버 인력센터와 같은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시스템을 확대하고 고령층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 교육 및 유연 근무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2. (링크이 방재센터)

⇒ 재해는 국가적인 대비 체계 구축과 국민 스스로 자신과 가족, 이웃을 돕도록 평상시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필요

- 자연현상에 따른 위험요소는 항상 존재하여 재해 발생에 대비, 평상 시 재해경감, 피해방지 대책 등 마련·시행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피난경보를 발령하고 안전하게 주민의 피난을 유도하며, 재해대책본부 개설, 피난소개설, 각종 정보·재해정보를 수집하여 주민과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재해대책본부 체계 확립으로 구조·구급, 긴급수송로 확보, 물자공급광역지원 요청, 이재민 지원 등, 지휘통제와 대책마련, 인적·물적 자원관리 등 자연대책에 대비하여야 하며 인재육성을 위한 방재공무원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여 복구와 부흥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남해와 동경 등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동경 대지진 발생 시를 대비하여 정부의 업무를 지속 유지하기 위한 대체 거점 지역 확보, 거주 상실자를 위한 거주지 확보, 대규모 이재민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하고있음.
- 또한 일본은 빠른 조기경보 시스템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차별화된 대비책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재해 발생 후에는 신속한 복구와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이러한 체계는 재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 역시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역별 재난 대비 훈련과 공공기관, 지역민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체계를 보다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

3.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 외 랜드마크)

- ⇒ 풍부한 역사와 전통적 요소, 그리고 현대적 혁신이 혼합된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다각적인 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도시 브랜드 조성.
- 도시의 상징적 랜드마크의 존재는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혁신이 혼합된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역동적인 대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연계되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도시 브랜딩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음.
 - 오다이바는 첨단 기술과 현대적 즐길 거리, 엔터테인먼트, 쇼핑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복합 관광지로, 자연경관과 첨단 도시 인프라, 다양한 체험시설을 결합하여 도시의 활력과 미래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임.
 - 반면, 아사쿠사는 일본 전통문화와 역사,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유서 깊은 지역으로, 전통사원과 전통시장은 일본의 옛 모습을 간직하여 전통적 정취와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었음.
 - 이처럼 두 지역의 서로 다른 특색을 살려 관광객 유치 전략을 추진하여, 두 지역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관광 패키지를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면 지역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우리도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적 자산을 살린 명소 개발을 통해 지역 이미지 강화는 물론 지역 발전과 고유 정체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선도적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임.